

#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고는 2008년 3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여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특성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입국시기 및 목적,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거주지역, 언어능력, 연령, 교육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 및 교육수준은 결혼이민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교함으로써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주거실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삶의 질 만족도 등에 의하여 살펴 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방안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 취득이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최근 입국자를 중심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연령과 교육수준의 큰 차이가 가족생활과 부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낮은 자가소유율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서론

한국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국제 물적 및 인적 교류 확산, 온라인상의 정보공유 확산, 혼인수급의 불균형, 혼인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인구의 국제이동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국제 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총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은 1990년

1.2%에서 2000년 3.5%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3.5%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소 주춤해져 2009년 10.8%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2000년대 진입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2000년 6,945건에서 2005년 30,719건으로 불과 5년만에 4.4배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국제결혼 대비 ‘한

국남성+외국 여성'의 결혼비율이 2000년 59.8%에서 2009년 75.5%로 증가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sup>1)</sup>

또한 결혼이민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여성이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 반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은 증가하는 경향이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 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 대책, 생활안정 대책, 사회통합 대책, 사회참여 촉진 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가족영역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2008년 3월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sup>3)</sup> 자료에 의하여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 2. 사회적 특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특성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입국시기 및 목적,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거주지역, 언어능력, 연령, 교육수준 등을 살펴본다. 특히, 연령 및 교육수준은 결혼이민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교함으로써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 1) 출신국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조선족이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 한족 등 소수민족 출신 27.3%, 베트남 19.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외의 국가는 10% 미만의 소수였는데,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이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결혼이민자 전체의 출신국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조선족, 중국 한족 등 소수민족, 베트남 출신이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78.7%나 되었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북미·호주·서유럽(16.2%) 출신이 조선

1) 통계청, 「혼인통계 결과, 각 연도.

2)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3)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음.

족, 중국 한족 등 소수민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 2) 입국의 시기 및 목적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2000년대에 들어와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 이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약 1%에 불과하였고, 1990년대 입국한 경우는 약 18%이었으며, 약 81%가

2000년대에 입국하였다. 특히, 전체 결혼이민자의 약 54%가 2005년 이후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수년동안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2005년 이후 입국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약 82%, 남성 결혼이민자의 약 71%로 최근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 증가가 한국여성들의 국제결혼 증가보다 높음을 짐작케 한다.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은 결혼, 취업, 친척방

표 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단위: %, 명)

구 분	전체 결혼이민자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중국(조선족)	30.4	30.0	34.2
중국(한족 등)	27.3	27.4	25.8
베트남	19.5	21.3	*
필리핀	6.6	7.2	*
몽골	1.4	1.5	*
태국	1.3	1.4	*
캄보디아	2.0	2.2	*
일본	4.1	4.2	3.9
북미·호주·서유럽	1.8	0.5	16.2
기타	5.5	4.4	19.9
전체	100.0(131,702)	100.0(120,146)	100.0(11,556)

주: \*은 기타에 포함됨.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2. 결혼이민자의 입국년도

(단위: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전체	1.1	3.3	14.6	27.0	54.1	100.0(121,979)
여성 결혼이민자	0.8	2.9	14.3	26.3	55.7	100.0(111,409)
남성 결혼이민자	4.2	7.4	17.0	34.1	37.3	100.0( 10,571)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문, 사업 및 업무, 유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 7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 7.3%, 친척방문차 입국 4.0%, 그리고 사업/업무차 입국 3.5% 등이었다.

### 3)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31.1%이었다. 국적 취득률은 여성 결혼이민자(31.8%)가 남성 결혼이민자(23.9%) 보다 7.9%pt 높았다.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72.0%는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영주권만 취득하겠다는 경우는 13.1%,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 없는

경우도 2.1%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예정률은 여성 결혼이민자(74.7%)가 남성 결혼이민자(45.9%) 보다 현저히 높았다. 반면에 영주권만 취득할 예정이거나 국적취득 예정이 없는 경우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각각 11.8%, 1.6%이었으나 남성 결혼이민자는 각각 25.9%, 7.1%로 현저히 많았다.

따라서 현재 한국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와 취득예정자를 포함한 한국국적 취득(예정)률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81.1%(31.1%+49.6%)이었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82.7%(31.8%+50.9%), 남성 결혼이민자의 58.8%(23.9%+34.9%)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한국국적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

표 3. 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

(단위: %, 명)

구분	결혼	취업	친척방문	사업/업무	유학	기타	계(수)
전체	79.2	7.3	4.0	3.5	2.1	3.9	100.0(129,080)
여성 결혼이민자	83.7	5.5	3.1	2.6	1.9	3.2	100.0(117,819)
남성 결혼이민자	31.7	25.6	12.8	13.1	4.8	12.0	100.0( 11,261)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4. 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률 및 미취득자의 향후 계획

(단위: %, 명)

구분	한국국적 취득여부		미취득자의 향후 계획 <sup>1)</sup>					한국국적 미취득(예정)율
	(분석대상)	취득률	국적 취득 예정	영주권만 취득예정	예정 없음	모름	계(수)	
전체	(129,220)	31.1	72.0	13.1	2.1	12.8	100.0(74,813)	10.5
여성 결혼이민자	(117,909)	31.8	74.7	11.8	1.6	11.9	100.0(67,732)	9.1
남성 결혼이민자	( 11,312)	23.9	45.9	25.9	7.1	21.1	100.0( 7,083)	25.1

주: 1)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을 하지 않았거나 예정하고 있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9.1%<sup>4)</sup> 있음은 결혼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가 9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영주권’ 6.0%, ‘취업 및 연수’ 1.5%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92.5%가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영주권’ 6.2%이었다.

#### 4) 거주지역

결혼이민자는 동 지역에 72.1%, 읍·면 지역에 27.9%가 거주하고 있었다. 동 지역 거주비율은 남성 결혼이민자(90.3%)가 여성 결혼이민자(70.3%)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배우자와 많이 결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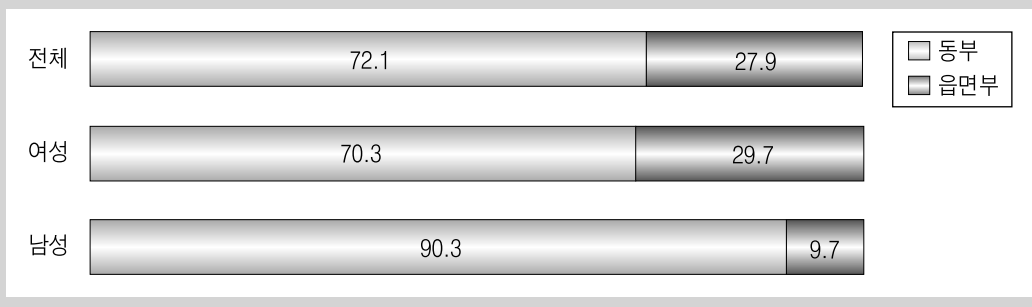
표 5.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현 체류자격<sup>1)</sup>

(단위: %, 명)

구분	영주권	한국인 배우자	취업 및 연수					유학	단기 비자	계(수)
			소계	전문직 취업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산업 연수/ 연수취업			
전체	6.0	92.2	1.5	0.3	0.2	0.9	0.1	0.1	0.2	100.0(82,812)
여성 결혼이민자	6.2	92.5	1.1	0.2	0.2	0.7	0.0	0.1	0.1	100.0(74,687)
남성 결혼이민자	4.1	89.9	5.0	1.4	0.3	2.8	0.5	0.7	0.4	100.0( 8,122)

주: 1) 90일 이하의 단기비자의 경우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1.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4)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향후 한국국적 취득여부가 미정인 경우(‘모름’)는 취득예정자로 간주하여 산출함.

## 5) 언어능력

자가척도에 의하여 판단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세 유형에 의하여 파악되었다. 한국어 능력이 '보통' 이라는 비율은 말하기 능력 38.7%, 읽기 능력 37.8%, 쓰기 능력 35.4%로 세 유형 모두 가장 높았다. 통상적으로 언어는 읽기와 말하기보다 쓰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와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보통' 35.4%, '(매우) 잘한다' 33.0%, '(매우) 서툴다' 31.6%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성 결혼이민자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 결혼이민자는 세 유형에서 모두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반면에 남성 결혼이민자는 세 유형에서 모두 '(매우) 잘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6)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연령

조사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 33.3세, 남성 41.6세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8.3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은 평균 43.2세, 남성 결혼이민자의 부인은 40.3세이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편과 9.9세의 큰 격차를 보였으나, 남성 결혼이민자는 부인과 1.3세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부인과 남편의 연령 차이는 캄보디아가 17.5세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베

표 6. 한국어 말하기 능력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계(수)
<b>전체 결혼이민자</b>						
한국어 말하기 능력	17.4	19.9	38.7	17.8	6.3	100.0(128,824)
한국어 읽기 능력	17.5	20.5	37.8	17.0	7.2	100.0(119,646)
한국어 쓰기 능력	16.1	16.9	35.4	21.5	10.1	100.0(119,501)
<b>여성 결혼이민자</b>						
한국어 말하기 능력	16.9	19.3	39.7	18.1	6.0	100.0(117,544)
한국어 읽기 능력	17.3	20.1	38.7	17.2	6.6	100.0(108,966)
한국어 쓰기 능력	16.0	16.6	36.3	21.7	9.4	100.0(108,835)
<b>남성 결혼이민자</b>						
한국어 말하기 능력	22.6	25.8	27.7	14.3	9.6	100.0( 11,282)
한국어 읽기 능력	19.7	23.9	28.5	15.1	12.8	100.0( 10,678)
한국어 쓰기 능력	17.6	19.7	26.2	19.4	17.2	100.0( 10,666)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7.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단위: 세)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부인 본인(A)	남편(B)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차이(B-A)	남편 본인(C)	부인(D)	남성 결혼이민자와 부인의 연령차이(C-D)
33.3	43.2	9.9	41.6	40.3	1.3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트남 17.0세, 필리핀 10.9세, 몽골 10.0세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북미·호주·서유럽과 일본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과의 연령차이는 각각 2.0세, 2.3세에 불과하였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한국부인과의 연령차이는 최저 0.2세, 최고 6.5세로 여성 결혼이민자보다는 작았다. 특히, 몽골과 베트남 출신의 남성 결혼이민자는 한국부인의 연령이 오히려 각각

6.3세, 3.9세 많았다.

### 7) 결혼이민자 및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학력이 42.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7.7%, 대학

표 8.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단위: 세)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부인 본인(A)	남편(B)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차이(B-A)	남편 본인(C)	부인(D)	남성 결혼이민자와 부인의 연령차이(C-D)
중국(조선족)	39.5	46.2	6.7	45.0	43.2	1.8
중국(한족 등)	33.9	42.7	8.8	41.0	40.6	0.4
베트남	24.3	41.3	17.0	30.1	34.0	-3.9
필리핀	31.7	42.6	10.9	36.8	36.6	0.2
몽골	31.3	41.3	10.0	32.9	39.2	-6.3
태국	34.5	41.6	7.1	39.3	32.8	6.5
캄보디아	23.5	41.0	17.5	30.6	25.0	5.6
일본	40.0	42.3	2.3	48.3	43.8	4.5
북미·호주·서유럽	38.3	40.3	2.0	39.7	36.5	3.2
기타	32.0	40.9	8.9	37.2	37.7	0.5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상 20.6%이었다. 반면에 남성 결혼이민자는 대학 이상 학력이 40.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4.5%, 중학교 18.9% 등이었다. 따라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는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약 2배나 되었다.

최근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심하였는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70.8%, 중학교 학력자의 66.5%, 고등학교 학력자의 51.2%, 대학 이상 학력자의 44.0%가 2005년 이후 입국자였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는 부부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컸는데,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남편간의 교육수준 격차가 매우 심하였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의 51.0%, 중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의 65.5%가 남편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였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

의 19.2%가 남편이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였다. 이와는 상반되게 남성 결혼이민자는 부부간에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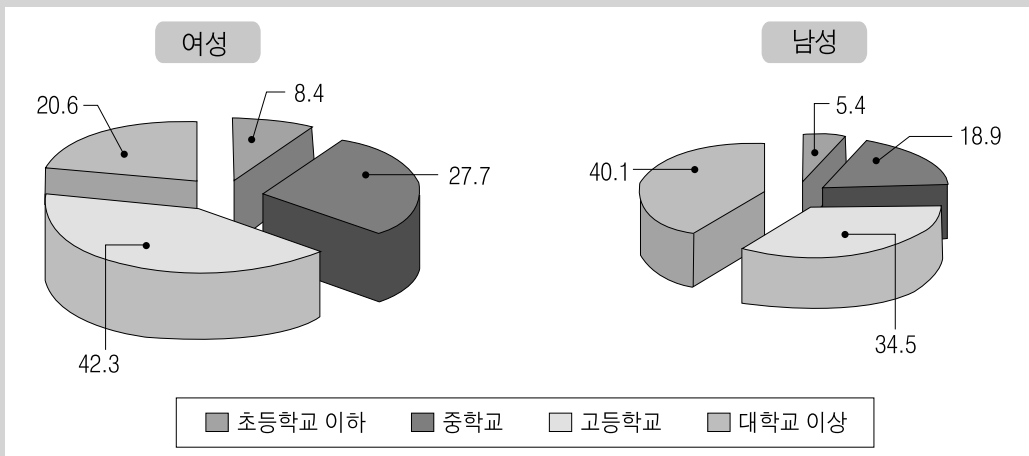
### 3.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주거실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삶의 질 만족도 등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 1) 주거실태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전세·월세 42.2%, 본인·배우자 소유 33.0%, 배우자 부모 소유 19.5%로 자가소유율이 낮았다. 자가소유율은 여성 결혼이민자(33.7%)가 남

그림 2.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9.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별 입국년도

(단위: %, 명)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0.8	2.9	14.3	26.3	55.7	100.0(110,487)
초등학교 이하	1.0	1.9	7.6	18.7	70.8	100.0( 9,092)
중학교	0.4	2.2	9.4	21.5	66.5	100.0(30,559)
고등학교	0.7	3.3	16.9	27.9	51.2	100.0(47,523)
대학 이상	1.6	3.3	18.4	32.7	44.0	100.0(23,313)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4.2	7.4	17.0	34.1	37.3	100.0(10,506)
초등학교 이하	4.1	4.9	5.8	34.9	50.3	100.0( 567)
중학교	2.1	6.3	13.0	27.8	50.9	100.0( 1,996)
고등학교	3.2	8.0	15.7	32.3	40.8	100.0( 3,607)
대학 이상	6.1	7.9	21.3	38.7	25.9	100.0( 4,336)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10. 결혼이민자 교육수준별 배우자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결혼이민자 교육수준	배우자 교육수준				계(수)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여성 결혼이민자					
초등학교 이하	26.6	22.4	39.1	11.9	100.0( 8,655)
중학교	6.2	28.3	50.2	15.3	100.0(29,811)
고등학교	4.9	13.5	62.4	19.2	100.0(46,647)
대학 이상	3.9	8.4	39.8	47.9	100.0(23,553)
남성 결혼이민자					
초등학교 이하	49.8	15.1	29.0	6.1	100.0( 558)
중학교	7.5	49.5	37.7	5.3	100.0(1,984)
고등학교	3.6	17.5	64.4	14.6	100.0(3,656)
대학 이상	1.9	4.2	21.9	72.0	100.0(4,460)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성 결혼이민자(25.6%)보다 8.1%pt 높았고,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전세 또는 월세의 비율이 60.6%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거에 대한 책임이 남성에게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과 결혼 이민자인 외국출신 남성이 짧은 기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족의 주거형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다. 즉, 아파트 거주자 32.2%, 일반단독주택 거주자 32.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다세대주택 19.0%, 연립주택 10.3% 등의 순이었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는데,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형태는 전체 결혼이민자와 유사한 양상이었던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다세대 주택 27.4%, 일반단독주택 19.6% 등의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의 거주환경은 ‘보통’ 42.6%, ‘매우 양호’ 39.1%로 비교적 무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거주환경은 결혼이민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거주환경을 살펴 보고, 조사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전반적 거주환경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18.3%로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표 11. 다문화가족의 주택 소유형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배우자 부모 소유	전세 또는 월세	기타	계(수)
전체	33.0	19.5	42.2	5.3	100.0(128,916)
여성 결혼이민자	33.7	20.8	40.4	5.1	100.0(117,689)
남성 결혼이민자	25.6	6.1	60.6	7.7	100.0( 11,228)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12. 결혼이민자의 주거형태

(단위: %, 명)

구분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계(수)
전체	32.1	19.0	10.3	32.2	3.1	1.1	0.5	1.6	100.0(130,372)
여성 결혼이민자	33.3	18.2	10.3	31.9	3.1	1.0	0.5	1.6	100.0(118,908)
남성 결혼이민자	19.6	27.4	10.0	35.2	3.5	1.4	1.0	1.9	100.0( 11,465)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13. 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

(단위: %, 명)

구분	매우 양호	양호	보통	열악	매우 열악	계(수)
전체	9.4	29.7	42.6	15.4	2.9	100.0(129,782)
여성 결혼이민자	9.4	30.1	42.8	14.9	2.7	100.0(118,473)
남성 결혼이민자	10.1	25.1	40.0	20.4	4.4	100.0(11,307)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 2) 가구소득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으로 18.7%이었다.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하였다.<sup>5)</sup>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필리

핀,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저소득층이 많았고,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고소득층이 많았다.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가 필리핀(28.7%), 중국 조선족(24.7%), 캄보디아(23.7%), 베트남(22.5%), 태국(21.1%)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이 21.8%로 높았던 반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3.5%로

표 14.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수)
전체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0(126,312)
여성 결혼이민자	5.1	16.4	38.6	18.5	5.4	1.6	0.8	0.4	0.6	12.5	100.0(115,235)
남성 결혼이민자	5.4	14.7	36.0	20.4	8.1	4.1	2.1	1.1	2.0	6.0	100.0(11,078)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5)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23.7%, 100만원 미만 15.6%, 300만원 이상은 11.0%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국복지패널(2009)에 의하면 전체 일반 한국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2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5.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500~ 600만원 미만	600~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모르 겠다	계(수)
<b>전체 결혼이민자</b>											
전체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0(126,310)
중국(조선족)	5.7	19.0	40.8	20.4	5.8	1.7	0.6	0.2	0.4	5.4	100.0( 38,736)
중국(한족 등)	4.4	14.3	39.8	21.0	6.7	2.0	0.9	0.4	0.6	9.9	100.0( 34,914)
베트남	5.1	17.4	38.1	14.6	2.4	0.6	0.3	0.2	0.2	21.0	100.0( 24,258)
필리핀	9.0	19.7	29.2	8.3	3.8	0.9	1.3	1.0	1.8	25.1	100.0( 7,811)
몽골	4.9	12.7	44.3	17.2	5.6	0.8	0.8	0.3	0.4	12.9	100.0( 1,780)
태국	5.5	15.6	39.2	20.0	4.9	1.2	0.7	1.0	0.7	11.3	100.0( 1,687)
캄보디아	8.6	15.1	38.3	12.0	3.1	0.7	0.2	0.1	0.2	21.6	100.0( 2,450)
일본	3.2	13.2	37.3	23.5	7.9	3.0	1.5	0.6	1.0	8.8	100.0( 5,238)
북미·호주·서유럽	2.1	1.4	7.7	24.7	18.5	12.9	9.6	5.2	7.0	10.8	100.0( 2,316)
기타	2.9	11.6	38.0	19.8	8.9	3.4	1.5	0.7	1.7	11.5	100.0( 7,075)
<b>여성 결혼이민자</b>											
전체	5.1	16.4	38.6	18.5	5.4	1.6	0.8	0.4	0.6	12.5	100.0(115,232)
중국(조선족)	5.5	19.0	40.5	20.5	5.9	1.7	0.6	0.2	0.4	5.6	100.0( 34,952)
중국(한족 등)	4.1	13.8	39.7	21.3	6.9	2.1	0.9	0.4	0.6	10.2	100.0( 32,033)
베트남	5.2	17.3	38.1	14.7	2.4	0.6	0.3	0.2	0.2	21.1	100.0( 24,145)
필리핀	9.1	19.9	28.9	8.3	3.6	0.8	1.3	1.0	1.8	25.3	100.0( 7,681)
몽골	4.9	12.3	44.5	17.4	5.6	0.7	0.8	0.3	0.5	13.1	100.0( 1,750)
태국	4.9	15.8	39.1	20.1	4.9	1.2	0.7	1.0	0.7	11.5	100.0( 1,668)
캄보디아	8.6	15.1	38.3	12.0	3.1	0.7	0.2	0.1	0.2	21.6	100.0( 2,445)
일본	3.3	13.6	38.5	23.1	7.2	2.7	1.3	0.5	0.8	8.9	100.0( 4,866)
북미·호주·서유럽	2.8	0.8	8.9	18.1	14.4	6.4	11.5	5.5	10.6	21.0	100.0( 529)
기타	2.9	11.7	36.6	19.5	9.1	3.2	1.5	0.6	1.5	13.3	100.0( 5,165)
<b>남성 결혼이민자</b>											
전체	5.4	14.7	36.0	20.4	8.1	4.1	2.1	1.1	2.0	6.0	100.0( 11,079)
중국(조선족)	7.5	18.5	44.2	19.2	4.6	1.1	0.2	0.1	0.4	4.2	100.0( 3,787)
중국(한족 등)	6.9	20.6	40.6	17.8	4.0	1.6	0.7	0.0	1.2	6.5	100.0( 2,879)
일본	1.4	8.4	22.2	27.7	15.8	6.4	3.6	1.9	4.1	8.6	100.0( 419)
북미·호주·서유럽	1.8	1.6	7.4	26.6	19.7	14.8	9.1	5.1	6.0	7.8	100.0( 1,789)
기타	3.4	12.4	41.7	19.4	8.7	3.5	1.2	0.8	2.1	6.7	100.0( 2,204)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필리핀(25.3%), 캄보디아(21.6%), 베트남(21.1%)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특히 많았다. 이는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경우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 3) 다문화가족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결혼이민자가 자신가족의 경제생활 수준을 다른 한국가족의 것과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살펴해보았는데, 중간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5.0%이었고, 2.0%만이 상층이라 하였다.<sup>6)</sup>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월평균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이 실제 가구소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결혼이민자가 한국가족의 경제생활 수준을 잘 모르거나 결혼전 본국에서의 경제생활 수준을 고려한 판단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4)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만족도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즉, 전체 결혼이민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56.8%로 높았던 반면 ‘매우 불만족’은 6.9%로 낮았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월평균 가구소득과 달리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것에서 추측한 바와 같이, 결혼전 본국에서의 삶의 질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 4. 정책적 함의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

표 16. 결혼이민자의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단위: %, 명)

구분	최하층←		중간						→최상층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9.7	5.8	9.5	14.0	14.9	38.1	3.6	2.2	1.2	0.3	0.5	100.0(127,973)
여성 결혼이민자	9.4	5.6	9.3	13.9	15.3	39.1	3.5	2.1	1.2	0.3	0.5	100.0(116,745)
남성 결혼이민자	13.4	7.8	12.4	15.1	10.7	28.2	5.6	3.6	2.1	0.5	0.5	100.0(11,226)

주: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여 논의함.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6) 전체를 11점 척도(0~11점)로 측정하였으며, 0~2점을 하층, 3~7점을 중간층, 8~10점을 상층으로 구분하였다.

표 17. 결혼이민자의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삶의 만족도					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21.0	35.8	36.4	5.6	1.3	100.0(129,693)
여성 결혼이민자	21.5	35.5	36.3	5.5	1.2	100.0(118,356)
남성 결혼이민자	14.9	38.9	38.0	6.4	1.9	100.0(11,340)

자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분석

과에 기초하여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국국적 취득이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률이 여전히 낮음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과 국적취득의 문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최근 입국자를 중심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어 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을 지역 사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배우자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클 경우 이것이 가족생활과 부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조사결과, 부부간의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다문화가족이 많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사전에 준비토록 함으로써 결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구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breadwinner)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낮은 자가소유율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기 임대 아파트 특별지원과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별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생활에서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삶의 질 만족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